

개혁개방후 중국의 경제성장과 국유기업

김 중 섭*

목 차

- I. 머리말
- II.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성장
- III. 국유기업의 역할
- IV.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V. 결 론
- 참고문헌

I. 머리말

2001년 여름, 중국은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확정되고 2008년 하계올림픽을 북경에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등 두 사건으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중국정부가 오래 동안 노력하여 추진해 온 일이고, 또 그동안 마치 국가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기쁨과 흥분은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경올림픽 유치성공 후 중국국민은 축제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시대가 왔다”고 외치는 자신감에 찬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언론 매스컴도 앞다퉈 중국특집을 내놓아 중국열풍이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올림픽 하나 때문에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사람들이 매스컴의 이런 보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중국이 보여준 경제성장 때문이다. 현재 한국 내지 세계의 중국열풍은 이러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중국이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런 예측이 어느 정도 타당한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중국은 1980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의 경제 고속성장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80년대이다. 계획경제의 공급부족상태 때문에 개혁이후 주민의 소비수요가 이끈 경제성장을 가져왔다. 농산물, 의복, 소비재 등의 생산이 대폭 증가하여 중국의 첫 번째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두 번째는 90년대인데,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증가 및 도시소비수요의 확대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중국의 연평균 GDP성장률은 세계최고인 12%이었다. 이때부터 세계는 중국의 잠재력을 주목했고 심지어 “中國威脅論”이라는 말까지 나왔다.¹⁾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중과

1) 中國科學院國情分析研究小組, 『機遇與挑戰--邁向21世紀的經濟發展目標和基本發展戰略研究』(中華歐亞學會, 1996).

하지만 96년부터 중국경제는 침체국면에 접어들어 성장률은 1자리 수로 하락하였다. 1996년-1999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8%이다.²⁾ 그리고 2001-2005년의 평균 성장률을 7%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학자의 표현대로 중국경제가 “大調整” 단계에 접어들었다.³⁾

중국경제가 90년대 초반에 초고속 성장을 보여주고 후반부터 속도가 느려진 원인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이에 대한 답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본 논문은 수요측면, 특히 국유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이 문제를 다뤄 보고자 한다.

II.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성장

중국인 1979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후 우선 농촌에서 이전의 사회주의식 집단생산을 포기한 생산책임제(包產到戶), 경영책임제(包幹到戶)를 실시하고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부분을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실시하였다. 또 농촌 및 주변 소도시에서 향진기업(鄉鎮企業)이라고 하는 소규모 생산기업을 만들어 농촌의 과잉 노동력을 흡수하였다.⁴⁾

이러한 개혁정책은 사회주의체제에 의해서 억제되었던 인간의 이윤추구동력을 해방시켜 빠른 소득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소득증가는 소비심리의 상승으로 이어져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식품, 의복, 내구소비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고 이러한 수요가 자원을 소비재공업으로 유도하여 공업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 결과 중국은 1983년에서 1988년까지 근 6년의 경제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러한 경기는 1988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앞에서 보듯이 80년대의 경제변영은 주민의 소득증가에 따른 수요확대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80년대 말기에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이 이러한 수요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첫째는 농촌주민의 구매력증가속도가 느려져 인구의 75%를 차지한 농촌시장의 수요가 활성화하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도시주민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도시가정의 내구소비재, 가전에 대한 수요가 이미 포화상태였고, 또 식품, 의복 등 생필품에 대한 수요의 소득탄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더 이상 80년대 초반 같은 폭발적인 소비수요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⁵⁾ 따라서 1990-1991년 중국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졌다.⁶⁾

중국의 경우, 수요부족이 정부와 기업에 주는 압력은 시장경제국가보다 훨씬 강하다. 개혁개방이후 초기 중국의 경제성장은 주로 가전,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경공업에 의지한다. 이걸 국유(國有)기업

p.13.

- 2) 물론 이런 수치는 당시 금융위기로 정체된 아시아 주변국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3) 中國社會科學院經濟研究所宏觀課題組, “大調整: 一個共同的主題和必然的選擇”
<http://www.cii.net.cn/s-xx-dtz.shtml> (검색일: 2001년9월28일)
- 4) 중국의 농촌 개혁은 이일영, “농업-농촌의 경제개혁”, 유희문 외 공저, 『현대중국경제』(교보문고, 2000년6월), pp.112-140 참조.
- 5) 張軍, 『中國經濟改革的回顧與分析』(山西經濟出版社, 1999), pp.19-21.
- 6) 90년의 경기침체를 89년의 천안문사태 등 정치동란 이후 개혁과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하지만, 결국 89년의 정치동란도 88년부터 나타난 경기침체, 물가상승 등 경제불안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천안문사태의 배경에 대한 분석은 阮銘, 『鄧小平帝國』(台北: 時報文化出版, 1992), 13장 참조.

뿐만 아니라 향진기업(鄉鎮企業, 민영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공업, 가공업 분야에 갈수록 많은 과잉, 중복투자의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업종에 생산능력 과잉현상이 나타나고, 이를 충족할만한 수요가 없으면 이윤을 남길 수가 없다. 이러한 산업구조아래 많은 기업은 국내수요의 팽창에 의존하게 되었다.

민약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가 화폐공급을 늘리거나 기업이 생산을 증가해도 제품의 과잉과 누적만 가져오지 경제의 번영을 가져올 수 없다. 1990년 중국정부는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경제부흥을 꾀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⁷⁾

하지만 바로 1년 후인 1992년부터, 중국 경제는 다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동력은 어디서 온 것인가?

수요의 확대는 반드시 기존 경제구조의 제약을 받게 된다. 90년대 초 중국의 산업구조가 경공업에 편중된 상태아래 경/가공업에서 새로운 확장공간을 찾는 것은 어렵다. 즉, 경/가공업 부문에는 새로운 투자수요를 형성하기 힘들다. 하지만 90년대 초, 몇 가지 상황이 소비나 투자 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주택, 사회기초시설 등 대량의 건설수요였다.

1992년 중국 전국의 현(縣)이상 지방행정단위가 건설한 “경제개발구(經濟開發區)”는 전년도의 117개에서 2000개로 폭증하였다.⁸⁾ 이에 따라 전국의 건축공사의 규모는 50%증가하였다.⁹⁾ 이러한 開發區 열기가 90년대 초반 투자수요의 붐을 일으켰고 그 후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개발구”는 “경제특구”정책의 연장 및 확대이고 그 목적이 바로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90년대 전반 중국에 들어온 외자의 수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91, 1992년 두 해의 외국인의 직접투자 액수는 1985-1990년 6년의 합과 같고, 1993, 1994 두 해의 외국인 투자는 1991, 1992년의 4배나 된다.(표 1참조)

〈표 1〉 외국인 대중국 직접투자액

년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투자액 (억\$)	16.6	18.7	23.1	31.9	33.9	34.9	43.7	110.1	257.6	337.7	378.0

자료출처: 『中國統計年鑑』, 各年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외국자본이 중국에 들어온 것은 역사상 유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외국 투자는 건축자재, 공사설비, 노동력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창출하여 많은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촉진시켰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제품은 대부분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이런 수출증대효과도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한다. 1996년 외자기업이 중국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었다.(표 2참조)

7) 陸百甫, 『20年宏觀治理的經驗與教訓』(中國發展出版社, 1999), p.5.

8) 여기에도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 천안문사태후 개혁정책이 위축되었다가 1992년 鄧小平이 「南巡講話」를 발표하여 개혁개방의 지속필요성을 강조한 후 개혁정책이 다시 활기 띠기 시작했다.

9) 馬洪, 孫尙清 編, 『經濟白皮書 1992-1993, 中國經濟形勢與展望』(中國展望出版社, 1993).

〈표 2〉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비중

년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총수입비중	5.7	7.2	10.4	14.9	23.1	26.5	32.8	40.2	45.8	47.7	54.5	54.6
총수출비중	1.9	3.1	5.2	9.4	12.6	16.8	20.4	27.5	28.7	31.5	40.7	41.0

자료출처: 『中國統計年鑑』, 1998.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협조아래 중국경제는 90-91년의 불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였다. 이때 외국인 투자의 주축을 이룬 것은 홍콩, 대만의 자본이다.(표 3 참조) 그리고 이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생산성이나 수익성보다 정치의 상대적 안정, 외자에 대한 혜택, 언어문화상의 공통성, 그리고 "중국특색"이 있는 정경유착 등이었다.¹⁰⁾

〈표 3〉 국가별 대중국 직접투자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폴
1992	511	710	193	7790	1051	120	122
1993	2063	1324	518	17861	3139	374	490
1994	2491	2075	1346	20175	3391	723	1180
1995	3083	3109	1850	20500	3162	1043	1851
1996	3443	3679	2410	21258	3475	1358	2244

자료출처: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90년대에 나타난 "개발구 열기", "부동산 열기", "주식 열기"는 이러한 경제호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도입할 수 있는 외자의 숫자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나머지 많은 중국건설기업은 자신들의 맹목적인 투자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거품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 외에 사회, 경제 전반에 퍼져있는 부정부패, 지대추구(rent seeking), 지하경제 등 현상은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¹¹⁾

Ⅲ. 국유기업의 역할

80년대 중반부터 동유럽국가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경제는 하나같이 침체에 빠지고 중국의 호황과 대조적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중국의 개혁이 철저히 못하고 漸進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는 시장메커니즘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버리면 시장경제는 자동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들이 이런 체제전환

10) 程曉農, "繁榮從何而來?--中國經濟現狀和趨勢的分析", 『當代中國研究』, vol.54, no.3(1996), p.25.

11) 何清漣, 『現代化的陷阱--當代中國的社會經濟問題』(今日中國出版社, 1998) 참조.

국가에게 한번에 체제개혁을 완성하는 충격요법(big-bang 혹은 one-shock)을 제의하였다.¹²⁾ 하지만, 이런 정책의 결과, 경쟁력이 없는 국유부문은 보호를 잃어 곧바로 멸망하고私有부문은 아직 경제를 지탱할 만큼 성장하지 못하여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소련이나 東歐가 실패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과 기타 사회주의국가의 다른 점은 사유부문, 자유시장이 성장하는 동시에 국유부문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중국의 지도자가 선견지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정치적 여건으로 인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

중국의 정치 사회적 안정은 도시에 달려있다. 도시가 안정되면 국가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비록 농민이 중국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들은 분산되어 있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또 사회적으로 조직되어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정치안정에 직접 위협을 주지 않는다. 도시주민의 정치적 위협성이 훨씬 크다. 도시주민의 주류는 국가공무원이나 국유기업의 직원이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사회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유부문이 그들의 직원을 어느 정도 만족시키느냐에 달려 있다.¹³⁾

사회주의체제의 시장화개혁은 국유부문의 경제에 대한 지배적 역할을 제거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 국유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혹은 중요성은 줄어들었는가?

90년대부터, 중국의 향진기업과 외자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국유기업이 생산과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공업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국유부문이 공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5년의 2/3에서 1995년의 32%로 감소하였다.(표 4 참조)

〈표 4〉 중국 공업총생산의 所有制別¹⁴⁾ 구성

	국유기업	집체기업	개체기업	기타유형기업
1985	64.9%	32.1%	1.9%	1.2%
1990	54.6%	35.6%	14.6%	17.3%
1995	32.6%	35.6%	14.6%	17.3%
1996	28.5%	39.4%	15.5%	16.7%

자료출처: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12) Jeffrey Sachs and David Lipton. "Poland's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69, No.3 (1990), pp.47-66.

13) 왜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소련은 급진적 개혁을 할 수 있고 중국은 점진적 개혁밖에 못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 Susan Shirk.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 吳玉山. 『共產世界的變遷 : 四個共黨政權的比較』(台北: 東大出版, 1995)를 참조.

14) 중국은 소유제에 따라 기업을 다음처럼 분류한다.

1. 國有企業(全民所有制 기업) : 명목상 국가가 전국민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기업. 실제로 중앙 혹은 지방 정부가 관리, 운영함.
 2. 集體企業(集體所有制 기업) : 명목상 마을 혹은 單位(부서)의 소속원 전체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기업. 실제로 대부분 지방 말단 행정부서가 관리함.
 3. 個體企業(私營企業) : 순수 민간 소유기업.
 4. 기타소유제 기업 : 외자기업, 외국과 합작한 기업 등.
- "집체기업"은 사기업인가 혹은 공기업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개혁의 진행에 따라 점차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사기업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국민총생산(GDP)중 국유부문의 비중감소는 공업부문처럼 뚜렷하지 않다. 1994년 국유부문의 GDP에서 차지한 비중은 1985년에 비해 6%만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금융, 교통, 통신 등 중요한 서비스산업은 아직 국가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속도로 볼 때 앞으로 상당한 기간에 국유부문의 국민경제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표 5〉 국유부문의 생산이 GDP에서 차지한 비중

년도	1985	1992	1994	1992대비1985	1994대비1992	1994대비1985
비중	49.5%	43.5	43.2	-6.0	-0.3	-6.3

자료출처: 程曉農, “繁榮從何而來?--中國經濟現狀和趨勢的分析”, p.27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유부문의 생산이나 시장점유율의 비중이 하락한 것이 바로 그들의 정치사회적 지위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후자는 변화는 도시에서 국유부문에 의지하며 생활하는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실제로 보면 1984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개혁은 도시노동자중의 국유부문의 비중을 매우 적은 폭으로만 감소시켰다. 이 기간동안 이 비중은 4%밖에 감소하지 않았고, 도시노동자중 여전히 2/3이상이 국유부문의 직원이다. 거기다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공기업의 성격을 띤 집단소유기업의 직원을 포함하면 그들은 도시인구의 86%를 차지한다.¹⁵⁾

〈표 6〉 도시노동자중 국유부문의 비중

년 도	1984	1988	1990	1992	1993	1994
비 중	70.6	70.0	70.2	69.7	68.4	66.7
국 유 기 업	55.0	53.7	53.3	52.7	51.3	48.8
기타사업부서	15.6	16.3	16.9	17.0	17.1	17.9

자료출처: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직업별 從業人員” 항목.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취업인구중 국유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매우 느리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1992-1994년, 외자기업과 사영기업은 국유부문에서 일부 젊은 인력을 흡수해 갔지만 그 수량은 매우 한정적이다.

국유기업의 잉여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전체 종업원의 20-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⁶⁾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가 도시주민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며 또 기업의 수익과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잉고용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이후 시장경쟁이 격화되면서 국유기업의 과잉인력은 적자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감원을 통한 효율증대정책이 추진되었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샤강(下崗)”이다. “샤강”은 “업무에서 물러난다”는 뜻인데, 일자리를 상실하지만

15) 程曉農, “繁榮從何而來?--中國經濟現狀和趨勢的分析”, p.27

16) 김시중,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in 유희문 외 공저, 『현대중국경제』(교보문고, 2000년6월), p.172.

해당기업과의 공용관계 자체는 해제하지 않고 기업으로부터 일부 생계비지원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업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중국정부와 국유기업은 “샤강”인원의 재취업훈련 및 알선에 노력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국유기업에서 “샤강”된 노동자는 대부분 비국유기업에 취직하는 것을 꺼려 하는데 그 이유는 국유기업 종업원이 누리는 사회복지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⁷⁾

그러므로, 비록 중국의 시장화과정은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도시주민의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유, 집체기업에 의지한다.

90년대부터 국유부문의 공업생산 및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이 갈수록 감소한다면 시장의 규칙에 따라 자원배분에서 더 많은 자원이 효율이 더 높고 경쟁력이 더 강한 비국유부문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상황은 어떤가?

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 국유부문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한 비중의 하락속도는 국유부문이 국가총자본에서 차지한 비중의 하락속도보다 훨씬 빠르다.¹⁸⁾ 즉, 국유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한 만큼 자본을 점유한 양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계별로 본다면, 1980-1988년까지의 첫 단계에서 국유기업의 생산비중이 하락함과 동시에 자본비중, 노동력비중도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속도가 생산비중하락속도처럼 빠르지 않지만) 국유부문의 자본과 노동력이 비국유부문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1988-1992년의 단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국유부문의 실제생산과 시장비중(점유율)은 계속 감소하지만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자본 비중은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았고 노동력비중은 변동이 없었다. 국유부문에서 비국유부문으로의 자원(생산요소)이전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그 의미는 국유부문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장의 자원 재배분의 기능을 저해한 것이었다.(표 7 참조)

〈표 7〉 국유부문이 공업생산, 자본, 노동력에서 차지한 비중(%)

	공업생산	자본	노동력
1980	81.5	86.7	64.6
1988	68.2	77.2	56.6
1992	56.9	73.1	56.5
1992대비1980	-24.6	-13.6	-8.1
1988대비1980	-13.3	-9.5	-8.0
1992대비1988	-11.3	-4.1	-0.1

자료출처: 郭克沙, “中國所有制變動與資源總配置效應”, 『經濟研究』, 1994년7期, p.18.

그러므로, 우리는 90년대에 중국의 더 빠른 성장을 목격하지만 사실 이 시기의 시장기능은 오히려 1989년 이전보다 훨씬 저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초반의 경제호황 중에 향진기업(鄉鎮企業)과 국유기업의 대응방식을 비교해보면 국유기업의

17) *ibid.*, pp.172-173.

18) 郭克沙, “中國所有制變動與資源總配置效應”, 『經濟研究』, 1994년7期, p.18.

이러한 시장왜곡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향진기업의 행동양식은 경쟁적으로 시장을 쟁탈하는 것이었고 국유기업은 독점적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었다.

1990년과 비교한 1993년의 자료에 의하면, 23개 공업부문에서 향진기업은 금속/비금속광업, 식품제조, 방직(紡織), 목재가공, 가구제조, 제지(製紙), 보통 化工, 유기화학제품, 전기제조, 계량기제조 등 9개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10-15% 증가하였다.¹⁹⁾ 이것은 국유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시장점유율의 증가는 향진기업으로 하여금 국유기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하였다.

시장을 잃은 국유기업은 다른 곳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찾고자 한다. 그 방법은 독점적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국유기업의 제품의 가격은 1993년에 평균 20% 증가하였고 향진기업의 제품 가격 증가율은 5%에 불과하다. (표8 참조) 1993년부터 에너지, 원자재에 대한 수요증가는 국유기업이 제품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가 독점하는 사업중 鐵鋼, 電力, 石油 등 제품의 가격은 2년 내에 각각 70%, 90%, 150%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이윤율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그 판매이윤율이나 자본이윤율은 계속 3%에 밀둔다.²⁰⁾

〈표 8〉 국가독점산업 제품출고가격 증가율(%)

	冶金(철강)	電力	石油化學
1993대비1992	57.7	35.9	71.3
1994대비1993	6.8	39.5	48.7
1994대비1992	68.4	89.6	154.7

자료출처: 程曉農, “繁榮從何而來?—中國經濟現狀和趨勢的分析”, p.34.

IV.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측면으로 보면 국유부문에 대한 보호정책은 더욱 심하다. 〈표9〉에서 나타나듯이 1992년 전국 총 금융자원(대출)중 국유부문이 사용한 것은 80%나 되지만 국유부문의 생산비중은 40%밖에 안 된다. 1985-1992사이 국유부문이 국민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하락했지만 금융자원비중은 4.7%만 하락하였다. 그리고 1992-1994사이는 생산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만 금융자원비중은 오히려 1.3%증가하였다.

〈표 9〉 국민총대출중 국유부문이 차지한 비중(%)

년 도	1985	1992	1994	1992대비1985	1994대비1992	1994대비1985
비 중	82.0	77.3	78.6	-4.7	+ 1.3	-3.4

자료출처: 張杰, 『中國金融制度的結構與變遷』, p.259.

19) 程曉農, “繁榮從何而來?—中國經濟現狀和趨勢的分析”, p.34.

20) ibid. p.35.

또한 1993, 1994년 중국의 물가상승율은 24% 및 20% 이었는데 은행대출이자율은 10%밖에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유기업은 저금리로 대출 받은 것만으로 10%이상의 이윤율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금융혜택을 국가가 국유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지자 금융형식으로 지원한 다는 의미다. 이러한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국유기업의 이윤율은 3%뿐이다.²¹⁾

국유기업이 경쟁에 밀려 계속 시장을 잃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독점하는 금융기구를 통해 금융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이것은 국유기업이 국민경제자원을 추출(抽出, extract)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출은 중국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긍정적인 효과는 도시소비를 지탱하고 정치사회를 안정시켜 외자유치에 유리하고 또한 도입된 외자의 도움으로 현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는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치를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중국도시인구의 대다수가 여전히 국유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구매력은 주로 국유기업의 종업원에 의해서 지지된다. 한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1994년 도시주민 수입의 85%가 국유부문에서 나왔다고 한다.²²⁾

이러한 현상은 또한 중국 국유기업의 자산/부채비율 급속증가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1979년부터 1994년까지, 국유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24%에서 75%로 상승하였다. 중국 國有資產管理局의 통계에 의하면, 1994년 12만개 국유기업의 평균 자산/부채비율이 75.1%이다.²³⁾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현대경제에서의 정상적인 현상이고 기업이 대출을 한후 투자하여 기업의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자산/부채비율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자산/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대량의 대출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직원의 복지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감소하고 이윤이 줄어들지만 종업원은 감소하지 않고 복지후생 또한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체경영으로 이를 유지하기 힘들고 은행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도시주민은 대부분 90년대 전반의 경제호황 속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많은 가정의 생활수준은 향상되고 중산층 대열에 진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면 농촌의 상황은 어떤가?

중국의 경제개혁은 농촌에서 시작되었다. 농촌의 시장화 개혁정책이 성공을 거두자 도시에게도 압력이 생겨 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중국 社會科學院農村發展研究所의 한 연구에서 지적하기를, 비록 농촌경제의 성장속도가 도시보다 빠르지만 농민은 별로 덕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농촌의 자금이 대부분 도시에 의해 추출되었기 때문이다. 1978부터 1984년 사이에 농촌의 개혁으로 인해 600억원의 자금이 금융, 재정 루트를 통해 농촌으로 유입하였는데 1985-1994년의 상황은 정 반대다. 약 4000억원의 자금이 농촌에서 도시로

21) 張杰, 『中國金融制度的結構與變遷』(山西經濟出版社, 1998), pp.40-45.

22) 中國國家統計局的 조사에 따르면, 1992 및 1994년 국유부문 종업원의 임금수입이 도시주민 임금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84%와 84.9%이다. 劉解龍, 唐未兵, 『國有經濟論--中國國有經濟的發展趨勢研究』(湖南人民出版社, 1998), p.35.

23) 『中國改革報』, 1995年9月15日.

흘러 들어갔다. 1994년 중국 경제성장증 농촌의 공헌은 3/4이나 되는데 농민의 상대적인 생활수준은 오히려 개혁이래 최악에 빠졌다. 1994년 한해에만 도시는 농촌에서 1340여억원의 자금을 뽑아갔다.²⁴⁾

자원이 농촌에서 도시로 유출된 결과는 번영한 도시와 쇠퇴한 농촌이다. 자원배분의 도시편중현상은 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현상이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왜 80년대 초기의 개혁은 소득의 도시편중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었는데, 90년대 이후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났고 심지어 개혁전보다 더 심각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러한 도-농 격차는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문제다.

중국 國家統計局의 자료에 의하면, 1978년부터 1993년까지 도시주민의 실제 수입은 계속 꾸준히 성장해왔고 연평균 성장률은 5%이다. 농촌주민은 개혁초기인 1980년-1985년에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지만 그 후 매년의 실제소득증가율은 도시주민의 반밖에 안 된다. 따라서, 1980-1985년 도-농의 소득 격차는 3.1:1에서 2.3:1로 감소하였지만 1986년부터 그 격차가 다시 확대되어 1997년 도시주민의 가구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농촌가정의 2.7배다.²⁵⁾

농촌의 자금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컨대, 국가재정당국이 많은 재력을 도시의 저소비물가를 유지하는데 사용하고 농산품 수매가격을 올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독점적 지위에 있는 국유기업은 농업용 物資의 가격, 향진기업의 원자재가격, 공업소비품의 가격을 올림으로서 이윤을 추구하고: 국가은행이 농촌의 저축을 도시의 국유기업에 사용함으로써 농촌재정은 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등 경우가 그것이다.²⁶⁾

중국의 정부, 학계에서 이미 이런 문제를 주의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자주 보도하지만 도-농 소득 격차의 문제는 여전히 여전하다. 예를 들어 1994년 농업생산의 감소를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농산품 수매가격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서 발생한 이익은 다시 국유기업이 농기계, 공업소비재의 가격인상을 통해 가로챘다. 농민에게 돌아간 순이익은 별로 없다.²⁷⁾ 또 1995년 중국의 물가상승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다시 소매업자에 대한 물가보조를 실시하여 도시의 물가상승을 억제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높은 대도시의 물가는 오히려 싸지고 소득이 낮은 농촌의 물가상승률이 오히려 도시보다 5%나 높다.²⁸⁾

도-농간의 격차는 농촌주민의 소비능력, 저축능력의 하락을 초래한다. 도-농격차가 가장 작은 1985년에 인구의 80%를 차지한 농촌주민이 소비재시장의 40%의 상품을 소비하고 나머지는 도시주민이 소비하였다. 그후, 소득격차증가에 따라 농촌주민의 소비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1998년에는 26%까지 하락하였다. 국민총저축 중에 1985년에는 1/3차지하는데 1995년에는 17%로 하락하였다.²⁹⁾

농촌의 상황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도시에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소위 중산층이 형성되었다. 중국의 도-농 격차를 연구할 때 도시-농촌 주민간의 화폐소득만 비교할 경우 도시주민의 가처분 소득을 과소 평가할 수 있다. 도시주민은 화폐소득 외에도 주택, 의료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24) 張厚安, 徐勇 等, 『中國農村政治穩定與發展』(武漢出版社, 1996), pp.34-40.

25) 中國科學院國情分析研究小組, 『農業與發展』(中華歐亞學會, 1998), p.48.

26) 張厚安, 徐勇 等, 『中國農村政治穩定與發展』, pp.34-40.

27) “農民收入又如何?”, 『人民日報』, 1995年5月29日.

28) “農村爲何成爲價格高原?—物價形勢評析”, 『人民日報』, 1995年8月23日.

29) 中國科學院國情分析研究小組, 『農業與發展』(中華歐亞學會, 1998), p.53.

그들의 실제 구매력은 명목소득보다 훨씬 높은 시장경제국가의 1-2000달러 소득과 비슷하다.³⁰⁾ 따라서 본국의 질이 낮은 제품은 갈수록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선진국의 고가품에 대한 수요가 중국의 대도시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요증가는 즉시 외국기업에 의해 포착되어 그들은 다투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빈부격차를 예기하거나 도시의 소비력을 논할 때 외국계기업CEO, 個體戶(사영업자) 등의 성공담을 예로 들지만 이들은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금 세계가 탐내고 있는 중국의 왕성한 구매력의 주축은 다름 아닌 국유기업의 종업원들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90년대 중국도시주민의 소득증가는 생산성 향상에 기초한 것도 아니고 체제의 개혁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 의한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기존 자본축적과 농촌의 경제자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97년의 한 조사에 의하면, 81%의 응답자가 근 5년의 생활수준 향상은 근무부서에서 준 임금, 보너스, 복지에 의한 것이라고 대답하고, 부업, 겸직에 의한 것이라고 답한 것은 8%에 불과하다.³¹⁾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비록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많은 진전을 보였지만 도시주민은 기본적으로 아직 국유부문에 의지하고 있고 그 생활방식은 아직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 얻어낸 생활수준향상은 전에 소련이나 동독이 만들어낸 풍요와 매우 유사하다. 지금 중국의 도시가구에서 실현하고자 하거나 누리고 있는 현대식 주거환경(주방, 욕실), 가전제품 등 소위 “풍요”는 소련과 동구권은 이미 2, 30년 전에 실현한 것이다. 하지만 소련의 이러한 “풍요”는 경제적 효율성이 향상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국가가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투입요소의 한계생산성이 한계에 달하면 그 풍요는 다시 물거품이 된다. 그동안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기적”도 이러한 방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미국 경제학자 폴 크루먼(Paul Krugman)의 유명한 논점이다.³²⁾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건국 후 사회주의정책을 실시하는 30년 동안 소비를 억제하고 전 국민의 힘으로 축적해 온 재산이다. 개혁개방시기 후에도 전국의 상당량의 자원을 추출하여 계속 국가 자원을 독점해 왔지만 국유기업은 이 자원을 기술혁신 등에 투자하지 않고 직원의 복지, 주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여 도시소비의 활성화, 정치사회의 안정을 가져왔지만 그 대가는 국유기업 경쟁력의 심각한 저하였다.

이처럼 국유기업은 도시의 소비수요를 지탱해 왔고 사회정치적 안정을 유지시켰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유기업은 국내시장을 잃고 이윤율도 하락하여 부채비율은 계속 높아진다. 결국 국유기업은 완전히 정부의 지원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정부도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적이 없다. 80년대에는 국유부문은 아직도 탄탄한 국가재정에 의해 지탱되어 왔지만 90년대 이후 국가재정은 바닥이 났고 국가는 오히려 국민한테 돈을 빌려야할 실정이다. 재정부는 해마다 1-2000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지출을 충당한다.³³⁾

30) 程曉農, “繁榮從何而來?--中國經濟現狀和趨勢的分析”, p.38.

31) 『中國改革報』, 1997年8月15日.

32) Paul Krugman,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1994), pp.67-78.

33) 張杰, 『中國金融制度的結構與變遷』, p.120.

따라서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국가은행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다. 국유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결과는 바로 은행의 부실화다. 1994년 이미 중국 4대 국유은행의 대출중 20%는 회수 불가능하고 상환연기된 부실채권의 비율도 70%정도다. 또한 4대 은행의 자본금은 1500억 원이지만 대출은 4300억 원이다.³⁴⁾

90년대 중반부터 갈수록 많은 국유기업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1994년 중국의 은행이 최초로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1995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전반기 금융기관의 손실이 259억 원이 된다.³⁵⁾ 결국 이것은 국유기업이 “국가재정을 탕진한 다음 은행을 말아먹는” 행동이다.

은행이 대량의 돈을 국유기업에 빌려주고 회수불가능해도 대책이 없다. 그럼, 누가 이 자금의 공백을 메우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저축이다. 만약 주민의 저축이 없다면 즉시 금융위기가 폭발할 것이다.³⁶⁾

은행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 예금주는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 은행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정부에 대한 믿음과 둘째, 금융의 독점 때문이다. 국민이 계속 돈을 은행에 갖다 넣는 것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 시장이 아직 자유화 안된 상태에서 국민은 사실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이클을 볼 수 있다. 국가가 은행을 통해 국유기업에 자금 지원하고, 국유기업은 이 자금을 도시주민의 소득향상에 쓰고, 도시주민은 증가한 소득을 은행에 저축하고, 은행은 다시 이 돈으로 부실한 국유기업을 지원한다.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은 도시주민의 정부에 대한 믿음을 주고, 이런 믿음이 다시 은행을 지탱한다.

이런 복지를 통한 사회안정 추구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후유증을 남긴다. 우선 경제효율의 측면에서 보면, 경제성장과 시장화 개혁에 공헌이 작은 국유기업에게 더 큰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국유기업의 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국유기업에 의지하고 비국유부문으로의 이전을 꺼려하게 한다. 이러한 것은 개혁이 추구해온 시장화, 효율성 제고 등 목표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발전, 산업구조의 전환의 측면에서 볼 때도 중국은 이러한 정책으로 큰 대가를 감당하고 있다.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중국은 사회주의적인 개발정책으로 “고저축, 저소비” 정책을 통해 공업화를 달성했고 중공업 중심의 한 공업체제를 이루었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이런 기초가 없다. 중국이 50년대부터 소련으로 이런 공업생산시스템을 도입한 후, 공업생산에서의 이런 대규모, 표준화, 고에너지 소비의 특성은 지속되어 왔다. 즉, 포드주의 생산시스템(Fordist production system)이다. 80년대에 이런 시스템이 국제경쟁 속에서 간신히 생존할 수 있었지만 90년대 이후 포스트 포드주의 탄력적 생산시스템(Post-Fordist flexible production system)이 우세하다. 이런 생산시스템에서는 선진국의 기업은 세계상품교환고리(global commodity chains)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율한다. 세계화된 생산 네트워크를 통해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생산업자, 고도기술을 갖춘 능력 있는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제조업은 더 이상 대량화, 표준화의 생산에 의지하지 않고 매우 탄력적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한다.³⁷⁾ 이런 추세에 맞추어 중국의 공업체제도 탈바꿈해야 하는데 그 실상이 어떤가?

34) 田漢卿, “我國四大國有銀行的盈利性比較分析”, 『管理世界』, 1994年第6期, p.102.

35) “企業竟向銀行打白條”, 『人民日報』, 1995年2月20日.

36) 謝平, 『中國金融制度的選擇』(上海遠東出版社, 1996), pp.44-45.

경제의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이 제일 먼저 방출한 것은 노동집약적인 소비재 가공/제조업이다. 그 후 일부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인 기계제조, 중화학공업을 개도국으로 이전한다. 원래 중국의 산업구조로 볼 때 중국이 훨씬 쉽게 기계제조나 중화학공업에서 세계화 생산대열에 편입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상황은 경공업위주인 향진기업은 경쟁력이 있지만 중화학공업의 주체인 국유기업은 와해와 空洞化되는 국면이다. WTO가입 등 계기로 국유기업에 대한 보호가 철폐되고 외국기업이 진출하면 중국의 많은 중화학공업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중국 공업화의 후퇴를 의미하며 다음 세대의 중국인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³⁸⁾

90년대 중반이후 국가재정능력의 위축으로 정부는 도시에 대한 복지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또 자유주의 개혁파의 지속적인 압력도 감당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샤강”을 장려하고 사회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로 중국정부도 자국의 금융문제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정부는 점차 은행을 통한 국유기업 보호정책을 줄이기 시작했고 보호를 잃은 국유기업도 감원, 감봉 등 조치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97년부터 중국에서 기업의 정리해고, 파산 등으로 2000년말까지 무려 2000만명의 실업자가 국유기업에서 방출되었다.³⁹⁾ 하지만 96년부터 중국경제는 급성장단계에서 “연착륙(軟着陸)”단계로 접어들어 이 많은 잉여 노동력을 소화하기 힘들다. 또 정부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시장화 개혁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의료, 주택, 교육 등 모든 복지분야에서 “商品化”를 추진고 있다. 즉, 원래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싸게 공급되었던 주택, 의료, 교육 등 서비스를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부담 털기”조치는 국민의 소비패턴을 크게 바꿀 것이다. 전에 한국의 가정과는 비교할 때 무시해도 될 만큼 적었던 주택, 교육 지출이 앞으로 중국 가정의 소비지출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주민의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처럼 실직자의 취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기 시작하여 중국경제는 90년대 후반기부터 침체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위에서 중국경제가 90년대 상반기에 호황을 누리고 97년 이후 침체를 보인 원인을 보았다. 이 양자는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90년대 상반기의 번영이 바로 하반기 쇠퇴의 원인이다. 90년대초의 번영은 여러 요소가 동시 작용하여 창출해 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고 경제성장률은 4-6%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⁴⁰⁾

V. 결 론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2001년 전 세계는 중국열풍으로 들떠 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저임금의 수출가공생산기지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을 대체할 세계 최대시장으로 보고 있다. 마스크는 계

37) 中國科學院國情分析研究小組, 『機遇與挑戰--邁向21世紀的經濟發展目標和基本發展戰略研究』, p.41.

38) ibid. p.42.

3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차이나쇼크』(매일경제신문사, 2001), p.271.

40) 程曉農, “繁榮從何而來?--中國經濟現狀和趨勢的分析”, p.36.

속 중국을 “2억 중산층이 있는 소비대국”이라고 선전한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으로서는 더욱 기대가 크다.

그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 중국 대도시에서 보여준 번영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이러한 번영의 기초는 매우 취약하다. 그것은 국유기업에 대한 왜곡된 재정, 금융 지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 이러한 왜곡은 이미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 1996년부터 중국의 경기는 침체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 정부도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90년대부터 일련의 국영기업 개혁을 시도하여 일정한 성과는 있지만 아직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2001년 중국의 국유기업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아직도 7000만명이나 되어⁴¹⁾ 여전히 큰 정치적 이익단체를 형성하고 있다. 한 학자는 중국의 개혁과정을 “어려움을 만나면 일단 피해가고 쉬운 곳부터 한다”라고 표현했다.⁴²⁾ 즉, 시장화개혁은 반발이 가장 약한 농촌에서 시작하고 국유기업의 저항을 만나면 일단 개혁일정을 미루고 다른 분야의 개혁을 먼저 한다. 개방도 보수파세력이 가장 약한 남부 연해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북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미루고 미룬 개혁은 언젠가 안 하면 안될 날이 올 것이고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 날”이 다가온 것이다.

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정부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사실 중국의 국유기업과 은행의 관계는 한국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 따라서 중국은 정부가 아직 통제능력이 있을 때 은행의 부실채권, 국유기업의 부채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⁴³⁾ 이때 중국의 WTO가입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WTO에 가입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 제도를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대폭 수정해야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보호의 철폐도 포함된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보면 개혁파가 WTO라는 “외세”를 이용하여 국유기업의 저항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⁴⁴⁾ 지금의 중국에서 올림픽 유치성 공으로 전 국민이 세계대국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야망에 젖어 있다. 이런 분위기 하에 세계경제무대에 진입하는 WTO가입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반듯이 해야할 일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어서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훨씬 쉬워질 것이다.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 중국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 대량의 실업은 예상되지만 현재 중국정부의 통제능력으로 봐서 정치 사회적 혼란까지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 세계는 아직도 중국의 전망을 밝게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90년대처럼 10%이상의 성장을 보기 힘들겠지만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본다.

현재 중국의 과제는 단순한 투입에 의한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인 성장, 즉 생산성 향상 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점에서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상당히 많은 우수한 중국인 인재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정부로서는 그동안 나타난 빈부격차심화, 부정부패, 도덕적 해이 등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해야 중국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1) 『차이나쇼크』, p.271-272.

42) Susan Shirk,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pp.12-13.

43) 劉國光 等著, 『大思路—專家論述: 東亞危機和中國的改革與發展』(中國發展出版社, 1999), pp.83-92.

44) 최명해, 정세진, 김중섭, “중국의 WTO 가입과 제도창출”,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2001), pp.171-172.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는 이미 수출가공단계를 넘어 중국 국내시장을 겨냥한 합작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2001년의 “중국열기”는 더욱 그렇다. WTO가입으로 중국시장이 대폭 개방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도시소비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이다.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종업원의 소비능력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소비 감소를 사회의 다른 부문의 성장으로 보충되면 그동안 보여주었던 소비능력은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기타 부문의 성장이 대량 실업인구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소비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잠재시장이 방대한 만큼 진출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기업도 많다. 한국기업은 “시장이 크니까 틈새시장은 항상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되고 항상 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두어야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한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차이나쇼크』(매일경제신문사, 2001).
- 유희문 외 공저, 『현대중국경제』(교보문고, 2000년6월).
- 최명해, 정세진, 김중섭, “중국의 WTO 가입과 제도창출”,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1호(부산대학교 국제지역문제연구소, 2001), pp.171-172.

영문

- Krugman, Paul.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Dec, 1994), pp.67-78.
- Sachs, Jeffrey and David Lipton. "Poland's economic reform", *Foreign Affairs*, Vol.69, No.3 (1990), pp.47-66.
- Shirk, Susan. *The Political Logic of Economic Reform in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2)

중문

- 中國科學院國情分析研究小組, 『機遇與挑戰--邁向21世紀的經濟發展目標和基本發展戰略研究』(中華歐亞學會, 1996).
- 中國科學院國情分析研究小組, 『農業與發展』(中華歐亞學會, 1998).
- 田漢卿, “我國四大國有銀行的盈利性比較分析”, 『管理世界』, 1994年第6期.
- 阮銘, 『鄧小平帝國』(台北:時報文化出版, 1992).
- 何清漣, 『現代化的陷阱--當代中國的社會經濟問題』(今日中國出版社, 1998).
- 吳玉山, 『共產世界的變遷: 四個共黨政權的比較』(台北:東大出版, 1995).
- 陸百甫, 『20年宏觀治理的經驗與教訓』(中國發展出版社, 1999).
- 馬洪, 孫尚清 編, 『經濟白皮書 1992-1993, 中國經濟形勢與展望』(中國展望出版社, 1993).
- 程曉農, “繁榮從何而來?--中國經濟現狀和趨勢的分析”, 『當代中國研究』, vol.54, no.3(1996).
- 郭克沙, “中國所有制變動與資源總配置效應”, 『經濟研究』, 1994年7期.
- 張杰, 『中國金融制度的結構與變遷』(山西經濟出版社, 1998).
- 張軍, 『中國經濟改革的回顧與分析』(山西經濟出版社, 1999).
- 張厚安, 徐勇 等, 『中國農村政治穩定與發展』(武漢出版社, 1996).
- 劉解龍, 唐未兵, 『國有經濟論--中國國有經濟的發展趨勢研究』(湖南人民出版社, 1998).
- 劉國光 等著, 『大思路--專家論述: 東亞危機和中國的改革與發展』(中國發展出版社, 1999)
- 謝平, 『中國金融制度的選擇』(上海遠東出版社, 1996).